

#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구분	(주)세무의 건물	(주)한국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1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600,000
공정가치	3,800,000	3,500,000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주)세무

(주)한국

- |                 |               |
|-----------------|---------------|
| ① 처분이익 ₩100,000 | 처분손익 ₩0       |
| ② 처분이익 ₩200,000 | 처분손익 ₩0       |
| ③ 처분이익 ₩200,000 | 처분이익 ₩100,000 |
| ④ 처분이익 ₩300,000 | 처분손실 ₩100,000 |
| ⑤ 처분이익 ₩300,000 | 처분이익 ₩100,000 |

2. (주)세무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50,000이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거래처 A로부터 FOB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매입한 원가 ₩40,000의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거래처 B에게 FOB 도착지인도기준으로 원가 ₩20,000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수탁자 C에게 적송한 원가 ₩20,000의 상품 중 40%가 판매되었다.
-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30,000이며, 이 중 20%에 대해 매입의사를 통보받았다.
- 거래처 D에게 원가 ₩10,000의 상품을 ₩12,000에 판매하고, 2개월 후 이를 ₩13,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 ① ₩128,000      ② ₩134,000      ③ ₩136,000      ④ ₩140,000      ⑤ ₩156,000

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산정 시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30%	○ 당기 매출채권 회수	₩33,000
○ 당기 현금매출	₩11,000	○ 기초 재고액	7,050
○ 기초 매출채권	1,000	○ 당기 매입액	30,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 ① 5회      ② 5.5회      ③ 6회      ④ 6.5회      ⑤ 7회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②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 ③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5.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영업용 유류 저장설비(취득원가 ₩3,900,000, 잔존가치 ₩300,000, 내용연수 4년)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 종료 후 ₩400,000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의 무가 있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8%이며,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350이고,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 ① ₩1,080,000    ② ₩1,185,840    ③ ₩1,275,840    ④ ₩1,581,120    ⑤ ₩1,701,120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1. 12. 31.	20×2. 5. 1.	20×2. 12. 31.
₩980,000	₩1,050,000	₩990,000

- ① 영향없음                                      ② ₩7,500 감소                                      ③ ₩7,500 증가  
 ④ ₩10,000 감소                                      ⑤ ₩10,000 증가

7.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②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④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 (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구분	20×1. 1. 1. ~ 20×1. 12. 31.	20×2. 1. 1. ~ 20×2. 4. 30.
개발활동	₩4,500,000	₩7,500,000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년 말	20×3년 말	20×4년 말
회수가능액	₩11,500,000	₩8,200,000	₩8,900,000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3년도 손상차손과 (B)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              |            |              |            |
|--------------|------------|--------------|------------|
| (A)          | (B)        | (A)          | (B)        |
| ① ₩1,400,000 | ₩1,184,000 | ② ₩1,400,000 | ₩1,584,000 |
| ③ ₩1,800,000 | ₩1,184,000 | ④ ₩1,800,000 | ₩1,584,000 |
| ⑤ ₩1,800,000 | ₩1,684,000 |              |            |
9.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④ 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 ⑤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10. 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 ②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 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과 상계한다.
- ③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 ④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 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11.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③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충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 ④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⑤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20×1년과 20×2년에는 배당을 못하였으나, 20×3년에는 조건에 따라 배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구분	주당 액면금액	발행 주식수	액면금액 기준 연 배당률	비고
우선주 A	₩1,000	100주	3% (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000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우선주 B	₩1,000	100주	5% (비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200에 의무적으로 상환

우선주 A와 B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20×2년도,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우선주 발행시점의 적절한 할인율은 5%로 가정하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연도 배당금 지급시기는 해당연도 말이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5%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	0.9524	0.9524
2	0.9070	1.8594
3	0.8638	2.7232
4	0.8227	3.5460

- ① ₩12,970 감소                      ② ₩15,000 감소                      ③ ₩15,561 감소  
 ④ ₩17,596 감소                      ⑤ ₩18,000 감소

1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액면이자율: 2%(매년 말 지급)
○ 발행일 현재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5%
○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
○ 보장수익률: 4%
○ 전환조건: 20×1년 2월 1일부터 20×3년 11월 30일까지 액면금액 ₩10,000 당 액면금액 ₩5,000의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

(주)세무가 전환사채의 발행일에 인식할 자본요소(전환권대가)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5%	6%	4%	5%	6%
3	0.8890	0.8638	0.8396	2.7751	2.7232	2.6730

- ① ₩24,507                      ② ₩26,715                      ③ ₩27,807                      ④ ₩54,522                      ⑤ ₩62,432

14. (주)세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20×1년 4월 1일에 발행하였으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2,0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액면이자율: 3%(매년 말 지급)
○ 20×1년 1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5%	
○ 20×1년 4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4%	

(주)세무는 20×2년 10월 1일에 액면금액 중 5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5%	4%	5%
1	0.9615	0.9524	0.9615	0.9524
2	0.9246	0.9070	1.8861	1.8594
3	0.8890	0.8638	2.7751	2.7232

- ① ₩18,857 감소                      ② ₩49,823 감소                      ③ ₩58,103 감소  
 ④ ₩79,257 감소                      ⑤ ₩85,368 감소

1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현금 ₩1,000,000을 대여(만기일: 20×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5%)하고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주)세무는 (주)대한과 동 대여금에 대해 재협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 만기일: 20×5년 12월 31일로 연장
○ 표시이자율: 20×2년 초부터 5%에서 3%로 인하(매년 말 지급)
○ 20×1년 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100,000은 (주)세무가 부담
○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대여금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59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4	0.8227	0.7921	3.5460	3.4651

- ① ₩20,920 감소                      ② ₩53,947 감소                      ③ ₩103,947 감소  
 ④ ₩120,920 감소                      ⑤ ₩153,947 감소

16. (주)세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금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일자	내역
20×1년 12월 1일	A사가 발행한 A주식(주당 액면금액 ₩3,000) 100주를 주당 ₩4,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취득수수료로 주당 ₩80을 별도로 지급함
20×1년 12월 31일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5,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00임
20×2년 3월 15일	A사는 현금배당(주당 ₩150)과 주식배당(주당 0.2주)을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는 현금 ₩15,000과 A주식 20주를 수령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5,000임
20×2년 7월 1일	A주식의 50%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처분하였으며, 처분 관련 거래원가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20×2년 10월 1일	A사는 무상증자(주당 0.1주)를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가 현재 보유한 A주식의 수가 10% 증가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6,000임
20×2년 12월 31일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7,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40임

- ① ₩349,800 증가                      ② ₩421,800 증가                      ③ ₩438,000 증가  
 ④ ₩521,800 증가                      ⑤ ₩538,000 증가

17.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 평균이 ₩1,050,000을 초과하면, 매 초과액 ₩3,000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신주인수권 1,000개를 부여하였으며, 동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4,000이고 20×1년도 보통주식의 주당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종가	12월 31일 종가	1월 1일 ~ 12월 31일 평균주가
₩4,000	₩6,000	₩5,000
20×1년 9월 1일에 신주인수권 600개가 행사되어 (주)세무는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였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470,000이다.		

(주)세무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희석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① ₩134                      ② ₩140                      ③ ₩142                      ④ ₩144                      ⑤ ₩147



18.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의 보통주 60%를 ₩12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주)세무의 20×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고
재고자산(상품)	₩20,000	₩30,000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
기계장치	50,000	80,000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잔존내용연수 5년

○ 20×1년 중 (주)세무와 (주)대한의 재고자산(제품)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판매회사 → 매입회사	판매회사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매출액	매출원가	
(주)세무 → (주)대한	₩20,000	₩16,000	₩10,000

○ (주)세무와 (주)대한이 20×1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20,000이다.

○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대한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① ₩76,800
② ₩77,600
③ ₩79,200
④ ₩81,600
⑤ ₩84,000

19. (주)세무는 차량운반구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에게 차량운반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판매는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계약단계에서 (주)세무는 ₩1,000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300,000이며, 제조원가(장부금액)는 ₩1,000,000이다.
- 차량운반구의 20×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30,000이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를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사용한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 사용료 ₩500,000을 매년 말 지급한다.
- (주)대한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차량운반구를 (주)세무에게 반환한다.
- 20×1년 초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5%이고, 시장이자율은 10%이며, 내재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차량운반구 판매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2	2.4869

- ① ₩393,091 증가                      ② ₩394,091 증가                      ③ ₩408,117 증가
- ④ ₩409,117 증가                      ⑤ ₩423,143 증가

20.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에 대해 유지보수 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을 보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기계장치와 5년간의 유지보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가격을 ₩1,800,000으로 합의하였다. 기계장치와 5년간 유지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계장치	5년간 유지보수용역
개별 판매가격	₩1,500,000	₩500,000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유지보수용역도 계약대로 이행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 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4년간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을 ₩200,000으로 결정하였다. 축소된 유지보수용역은 4년간 매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은 기계장치의 납품과 구별되며,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과도 구별된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20×1년

20×2년

20×1년

20×2년

20×1년

20×2년
- ① ₩1,440,000   ₩50,000

② ₩1,440,000   ₩90,000

③ ₩1,590,000   ₩50,000

④ ₩1,590,000   ₩90,000

⑤ ₩1,590,000   ₩100,000

2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④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⑤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22. 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3가지 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다.
- ②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③ 취득자는 때로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인 취득법을 적용한다.
- ④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므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
- ⑤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2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③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24.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 ②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지만,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진다.
- ③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 포함한다.
- ④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 ⑤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보유목적이 다르므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25.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며, 매출액은 ₩300,000이다.

	재고자산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	₩30,000
재공품	25,000	34,000
제품	44,000	20,000

	당기 지급액	기초		기말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직접노무원가	₩25,000	₩2,500	-	₩1,500	-
수도광열비	30,000	2,500	-	-	₩10,000
복리후생비	15,000	-	₩3,500	-	8,000

(주)세무의 20×1년 매출총이익은?

- ① ₩110,000      ② ₩120,000      ③ ₩156,000      ④ ₩180,000      ⑤ ₩190,000

2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100,000으로, 직접노무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년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 작업 #201, #202, #203을 착수하였다.				
○ 20×1년 중 작업별 실제발생한 원가 및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201	#202	#203	합계
직접재료원가	₩27,500	₩28,000	₩4,500	₩60,000
직접노무원가	₩50,000	₩54,000	₩26,000	₩130,000
직접노무시간	2,000시간	2,000시간	1,000시간	5,000시간

- 20×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120,000이다.
- 20×1년 중 작업 #201과 #202는 완성되었으나, #203은 20×1년 말 현재 작업 중이다.
- 작업 #201은 20×1년 중에 판매되었으나, #202는 20×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주)세무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할경우, 20×1년 기말 제품재고금액은?

- ① ₩125,500      ② ₩129,500      ③ ₩130,000      ④ ₩132,000      ⑤ ₩134,000

27.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2.5kg
  - 직접재료 표준가격: ₩10/kg
  -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15/kg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12,5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5,000(유리)

20×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500kg일 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400단위

② 600단위

③ 800단위

④ 1,000단위

⑤ 1,200단위

28.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1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당기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구 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4,750kg(50%)	기초재공품	₩11,200	₩18,000
당기 착수	45,000	당기발생원가	90,000	195,750
당기 완성	36,000			
기말재공품	9,400(60%)			

(주)세무의 기말재공품 원가는?

- ① ₩47,000

② ₩57,800

③ ₩83,000

④ ₩93,800

⑤ ₩108,200

29.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판매량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제품 A	2,000단위	1,800단위	₩40,000	₩70
제품 B	2,500	2,100	25,000	30
부산물 C	200	200	-	15

(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6,880

② ₩7,600

③ ₩36,120

④ ₩68,400

⑤ ₩71,100

30.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는 동일하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표준원가>			
	표준수량	kg당 표준가격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직접재료 A	2.0kg	₩10	₩20
직접재료 B	1.2	20	24

  

<직접재료 구입 및 투입>			
	구입량	투입량	kg당 구입가격
직접재료 A	10,000kg	9,000kg	₩12
직접재료 B	5,000	3,000	18

당기에 직접재료 A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재료 B는 공정의 6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공정의 완성도 40%)이었고 당기완성품은 3,5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은 1,500단위(공정의 완성도 50%)이었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10,000 유리
 ② ₩10,000 불리
 ③ ₩14,000 유리
- ④ ₩14,000 불리
 ⑤ ₩24,000 불리

31.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S1	S2
S1	40%	30%	-	30%
S2	40%	40%	20%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계된 원가는?

- ① ₩50,000
 ② ₩100,000
 ③ ₩220,000
 ④ ₩250,000
 ⑤ ₩270,000

32.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부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20×1년 초에 수집한 연간 예산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500,000(급여 ₩300,000, 기타 ₩200,000)			
○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60%	40%	100%
기타	70%	30%	100%
○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8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30명	

20×1년 중 주요 고객 A가 12회 주문할 경우, 이 고객에게 배부될 판매관리비는?

- ① ₩6,000                      ② ₩8,000                      ③ ₩14,000                      ④ ₩48,000                      ⑤ ₩54,000

33. (주)세무는 두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A공정	B공정
최대생산능력	7,000단위	9,000단위
총 고정원가	₩188,000	₩160,000
단위당 변동원가	₩12	₩20

A공정 완성품(양품)은 바로 판매할 수 없고, B공정에서 추가가공하여 완제품 생산 후에 단위당 ₩100에 전량 판매할 수 있다. A공정에서는 투입량의 10%가 A공정 중점에서 공손이 되지만, B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공손은 정상 공손이고 정상공손원가는 양품에 배분하며, 공손품은 처분가치도 폐기비용도 없다. B공정 완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① 5,220단위                      ② 5,400단위                      ③ 5,800단위                      ④ 6,000단위                      ⑤ 6,120단위



34. (주)세무는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생산량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50
총 고정판매관리비	324,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5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

(주)세무의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① 4,160단위      ② 4,460단위      ③ 4,600단위      ④ 4,640단위      ⑤ 4,680단위

35.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220이며, 총 고정원가는 ₩1,080,000이다. 당기 예상 매출액은 ₩1,000,000부터 ₩3,000,000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3,000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a)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b)의 합(a+b)은?

- ① 40%      ② 50%      ③ 60%      ④ 70%      ⑤ 80%

36.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10,000이고,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이면 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70,000이 발생한다. 공정을 조사하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19,000이고 공정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21,000이다. 공정 전문가 L씨에게 상담을 받으면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L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 ① ₩2,000      ② ₩3,000      ③ ₩7,000      ④ ₩8,000      ⑤ ₩9,000

37.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A, B)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연간 예상 용역량은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A	B	
S1	-	200kW	500kW	300kW	1,000kW
S2	300시간	-	450시간	250시간	1,000시간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kW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S2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당 변동원가는 ₩80이다.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전력을 kW당 ₩12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1을 폐지하고 필요한 전력을 전량 (주)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익 증가액은?

- ① ₩4,000      ② ₩11,200      ③ ₩12,800      ④ ₩13,600      ⑤ ₩14,400

38. (주)세무는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A, B, C 세 가지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이 특수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은 1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단위당 판매가격	₩400	₩500	₩700
단위당 변동원가	₩160	₩200	₩380
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제품별 정규 시장수요	3,000단위	1,000단위	500단위

(주)세무가 최대 달성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생산·판매 계획을 수립한 직후에 그 동안 거래가 전혀 없던 (주)한국으로부터 제품 A를 단위당 ₩360에 800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50,000

② ₩42,000

③ ₩38,000

④ ₩25,000

⑤ ₩20,000

39.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단위당 변동원가는 ₩15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계단형으로 증가한다. 제품 생산량이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840단위이고, 두 번째 구간(1,001 ~ 2,5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2,400단위이다.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는 고정원가(a)와 달성가능한 최대이익(b)은? (단,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만 고려할 것)

(a)      (b)

(a)      (b)

(a)      (b)

- ① ₩78,000, ₩5,000

② ₩78,000, ₩8,000

③ ₩82,000, ₩5,000

④ ₩82,000, ₩8,000

⑤ ₩92,000, ₩5,000

40.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인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외부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B사업부에 내부대체할 수도 있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4,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외부시장에 단위당 ₩1,000에 3,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업부는 B사업부로부터 1,6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만, 내부대체 수량에 대해서는 A사업부의 변동원가가 단위당 ₩50 감소한다. A사업부가 1,6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 ① ₩600

② ₩650

③ ₩700

④ ₩750

⑤ ₩800

## 민 법

41.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정관의 작성                                      ② 설립등기의 경료                                      ③ 주무관청의 허가 취득
- ④ 기본재산의 출연                                      ⑤ 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4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
-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③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⑤ 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3. 법인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 ④ 법인의 대표자가 목적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5. 태아인 동안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②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③ 조부(祖父)로부터의 유증
- ④ 증여계약에서의 수증
- ⑤ 부(父)로부터의 재산상속

4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다.
  -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 ③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온 경우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 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48.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는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49. 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0.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 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도 유효하다.
- ③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④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51.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②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 ③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 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52. 법률행위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근보증계약 - 요식행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③ 채무면제 - 채권행위                        ④ 유언 - 생전행위  
⑤ 어음행위 - 유인행위

53.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부무효 포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
- ③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행한 이익보장약정

54. 공서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2중매매를 하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서 본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그러한 동기를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
-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④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은 공서양속 위반행위로 무효이다.
- ⑤ 도박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채권자의 대리행위를 통해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5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사직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 ③ 혼인과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③ 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 ⑤ 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아울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5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편무계약인 단순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공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공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 ④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하는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⑤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58.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 사이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乙의 채권자인 丙의 丙이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의 채권자인 선의의 丁이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 ㄴ. 甲과 乙 사이의 X부동산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에 기해 乙이 가동기를 마친 후 그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음에도 乙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가동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믿은 선의의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경우
- ㄷ.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과실 있는 선의의 丁이 양수한 경우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 ② 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③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 ④ 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

6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6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법원규칙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③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더라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6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는 물건이다.
- ②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 ③ 금전은 동산이다.
- ④ 신체로부터 분리된 머리카락은 동산이다.
-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6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계약자유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④ 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6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② 미등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③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65.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②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④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6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②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 ⑤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

67.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② 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리조트 사용료 채권에는 1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③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⑤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6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나이의 계산에서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③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 ④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 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69.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 ② 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70.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②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③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7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72.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② 중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7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 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7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6.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이 거래허가를 받으면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ㄴ. 만약 甲과 乙이 모두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ㄷ. 만약 위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정지조건이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78.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②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③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④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79.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 ④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할 수 있다.
- ㄴ. 쌍방대리라 할지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ㄷ. 민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